

## 사상 첫 민선 축협회장에 당선된 명의식씨

◇…지난 4월 13일 축협중앙회 2층 강당에서 167명의 회원조합장(1명 불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사상 첫 민선 축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명의식후보(현 회장)가 128표를 획득, 상대 강선원후보를 89표의 표차로 누르고 사상 첫 민선 축협중앙회장에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당초 근접한 우위를 보일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압도적 표차로 이겨 모든 이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든 명의식회장은 당선후 바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정부의 시녀”란 세간의 말을 의식한 듯 앞으로 정부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위상을 새로 설정해 나가겠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다음은 당선후 가진 기자회견 내용이다.<편집자 주>.....◇

# “정부와의 위상, 수직적관계에서 수평적관계로 개선해 나갈터”

- 인터뷰 : 김동성 -

-당선을 축하합니다. 소감은, 그리고 조합장들이 왜 명후보를 선택했다고 보는지.

**명회장 :** 먼저 저를 축협 회장에 선출해 주신 조합장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 당선은 예상했으나 기대이상의 표가 나왔습니다. 자화자찬 같지만, 축협 회장 취임이래 지난 3년반동안 제도권속에서도 양축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열심히 일해온 결과로 봅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명회장 :** 조합장님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축협이 그동안 양축농가를 가장 먼저, 그다음에 회원조합, 그리고 중앙회를 서열 3위에 두고 양축농가와 회원조합을 위주로 일을 해 온 결과로 봅니다.

특히 수입개방 반대 데모에 앞장 선 것이 회원조합장님들의 호응을 얻는데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초대 민선회장에 대한 축산업계의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보는데……

###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계획

**명회장 :** 축산농가들의 기대에 부응해 축협을 민주적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초대 민선회장으로서 축협의 민주화 기틀을 확립하고, 축산업 전반에 걸쳐 산적한 어려움을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수입개방저지를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 농축산물 수입을 저지해 나가고 대내적으로는 정부와의 관계를 수직적관계에서 수평적관계로 개선해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사상 첫 민선 축협회장에 당선된 명의식씨가 조합장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 향후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격랑속에서 축협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 축산물의 완전개방은 절대 용납못해

**명회장 :** 축산물의 완전한 수입개방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축산물은 제한수입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량을 국내 축산물가격과 연계시켜 부족분만 수입토록 하겠으며, 축산농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료에 대한 부가세 감소와 축산기자재 수입시 관세를 면제해 국내 축산업의 취약성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 중앙회의 기구가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구나 조직개편 계획은……

### 축협의 기구축소는 고려안해

**명회장 :** 민주축협에 알맞는 조직으로 개편은 하겠지만 기구축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업종 즉, 축종별로 알맞는 기구로 개편, 축협조직의 전문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선거에 출마할 의사는

**명회장 :** (웃음)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